



교역의 회복은 수요위축이 일시적이었다는 근거

1. 글로벌 교역의 회복 기대

- 6월 기준 중국 수출은 전년비 (+) 전환에 성공하여 +0.5%의 상승률을 기록. 특히 선진국향 수출이 개선된 특징. 결국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수요가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지지해 주는 근거.
- 중국의 수입 역시 (+) 전환에 성공한 것이 결국 내수에 대한 회복과 더불어 품목별로 볼 때 원자재와 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 반영 및 이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과정.
- 미국 ISM 신규주문지수와 중국 수출주문지수가 동시에 상승 반전을 기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던 교역의 회복이 실제로 증명되는 과정.

2. 한국 수출증가율도 저점통과

- 7월 10일까지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비 -1.7%를 기록. 세부적으로 반도체 +7.7%, 승용차 +7.3% 등을 기록하였고, 중국 +9.4%, 미국 +7.3%, 베트남 +4.1% 등 한국의 수출금액 상위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폭이 확대.
-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3분기 전망치는 102.1pt를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수준까지 회복. 주요 수출 애로요인으로 언급되는 항목이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이므로 중국 수출주문지수 회복 등으로 볼 때 수출경기 개선 기대.

3. 교역조건과 수출경쟁력

- 6월 수출물량은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는데, 5월에는 전년비 -20.6% 감소하였으나 6월에 -1.9%를 기록. 수출물가 또한 5월을 저점으로 하락 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모습.
- 현재와 같은 상황은 대외수요 개선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됨. 수출물가 회복은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지지하는 요소임.



주식시장 투자전략

1. 글로벌 교역의 회복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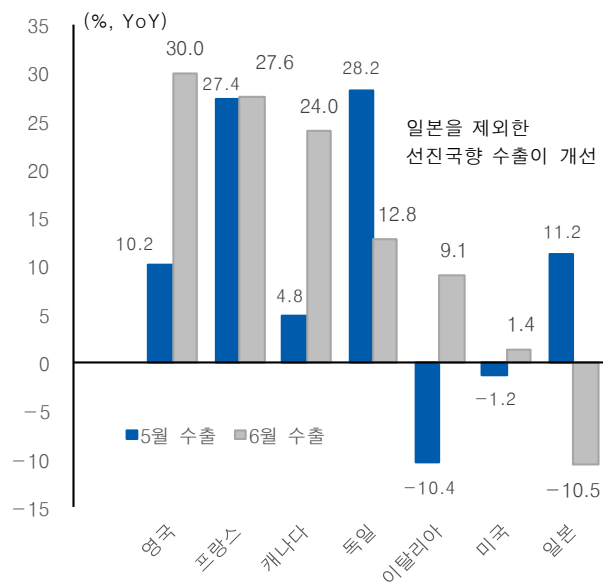
글로벌 교역을 살펴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중국의 수출이 회복될 조짐이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다. 6월 기준 중국 수출은 전년비 (+) 전환에 성공하여 +0.5%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특히 선진국향 수출이 개선된 특징이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된다.

지역별로 구분해보면 미국향 수출이 +1.4%를 기록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영국과 유로존으로의 수출 역시 증가된 모습을 볼 수 있다.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수요가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지지해 주는 근거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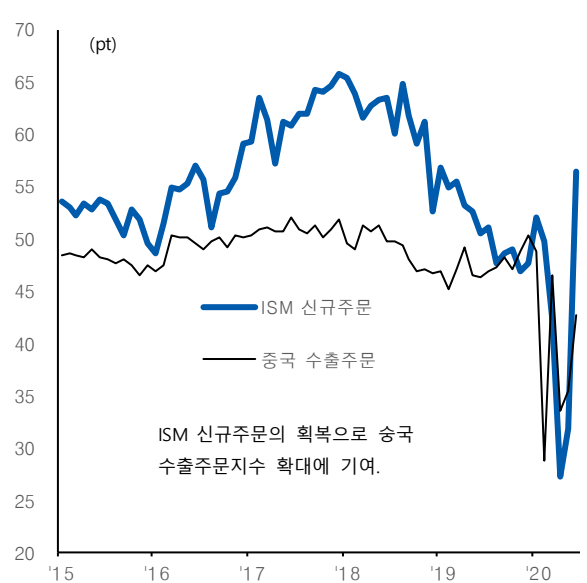
마찬가지의 논리에서 중국의 수입 역시 (+) 전환에 성공한 것이 결국 내수에 대한 회복과 더불어 품목별로 볼 때 원자재와 기계류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됨과 함께 생산성의 회복 및 이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볼 수 있다.

결국 미국 ISM 신규주문지수와 중국 수출주문지수가 동시에 상승 반전을 기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던 교역의 회복이 실제로 증명되는 과정인 것으로 생각된다.

[차트1] 중국 6월 수출은 플러스 전환에 성공. 특히 선진국향 수출 증가폭이 강한 모습.



[차트2] ISM 신규주문지수의 회복과 궤를 같이하는 중국 수출주문지수를 감안할 때 교역량 개선 가능성.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주식시장 투자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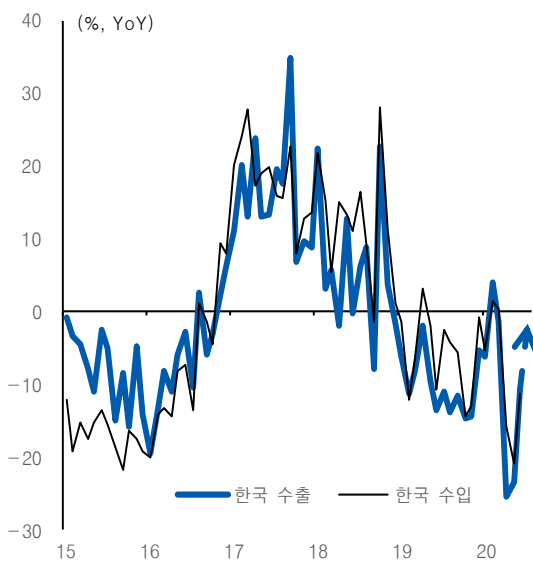
2. 한국 수출증가율도 저점통과

한국의 수출입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표되는 지표이다. 7월 10일까지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비 -1.7% 감소에 그치면서 수출하락폭을 상당히 축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. 특히 일평균수출도 지난해와 조업일수가 동일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. 물론 선박 등 일부 품목의 일시적인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긍정적 상황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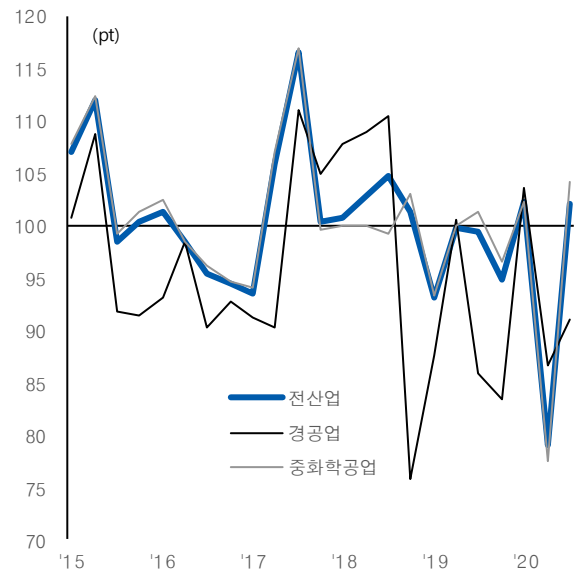
주요 품목으로는 반도체 +7.7%, 승용차 +7.3% 등을 기록하였고, 국가별로 보면 중국 +9.4%, 미국 +7.3%, 베트남 +4.1% 등 한국의 수출금액 상위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폭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. 결국 글로벌 교역의 회복기조에 의하여 한국의 교역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된다.

한편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 3분기 전망치는 102.1pt 를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수준인 102.2pt 까지 회복에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다. 업종별로 보면 석유제품, 생활용품, 선박, 반도체 등이 긍정적인 응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, 주요 수출 애로요인으로 언급되는 항목이 수출대상국의 경기부진인 것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 충격의 회복과 수출주문 등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제지표들을 근거로 볼 때 향후 수출경기의 긍정적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
[차트3] 수출의 전년대비 변화를 측면에서 2분기의 수치가 저점 영역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.



[차트4]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서는 2분기 급격한 충격을 경험하였으나 다시금 3분기 회복 가능성 기대.



자료: 관세청, 무역협회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

주식시장 투자전략

3. 교역조건과 수출경쟁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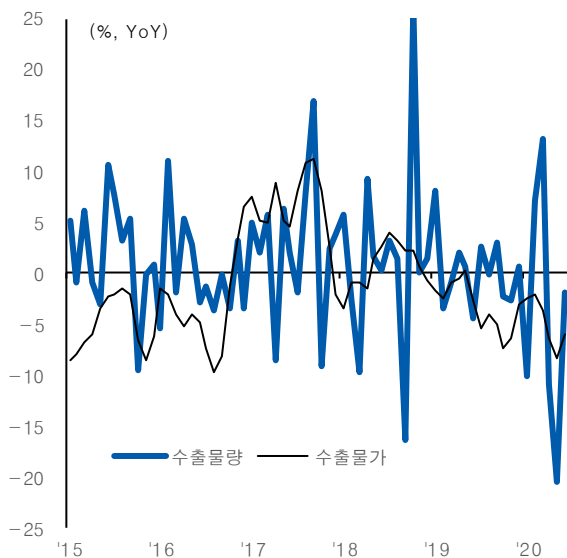
통상 수출경기 회복 초입 단계에서는 수출 수요량이 먼저 개선되고, 수출 물가는 시차를 두고 수요가 일정 부분 채워지고 난 뒤 완만하게 상승한다.

먼저 6월 수출물량 감소 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다. 지난 5월 전년비 -20.6% 감소한 수출물량은 6월 기준 -1.9% 감소하며,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었다. 수출물가 또한 5월을 저점으로 하락 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, 아직은 마이너스에 있지만 지난 5월(전년비 -8.4%)대비 +2.4%p 하락 폭을 축소하였다. 전월비 기준으로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어, 수출경기는 저점을 딛고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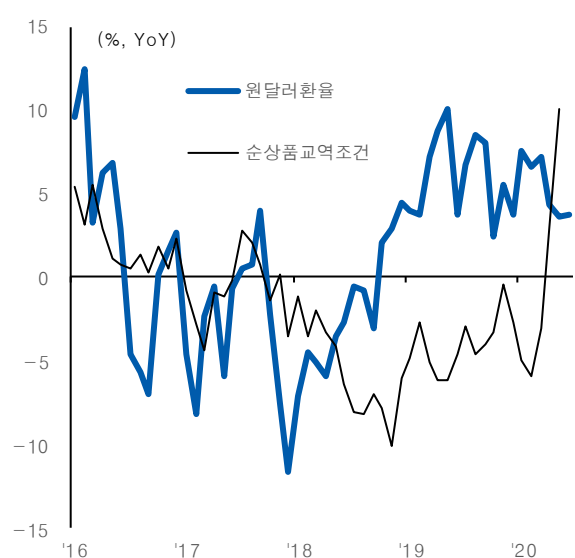
한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수출물가는 원화 기준으로 산출되는데, 통상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수출물가의 하락을 초래한다. 그러나 실제로 6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,210.01원으로 전월비 -1.5%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물가는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다. 환율효과를 제거한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를 살펴봐도 전년비 하락폭을 축소함과 동시에 전월비 기준 2개월 연속 상승하였다.

즉 현재와 같은 상황은 대외수요 개선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한다. 대외수요 개선에 따른 수출물가 회복은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.

[차트5] 수출물량의 감소 폭 축소와 수출 물가의 개선으로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.



[차트6] 교역조건지수의 급격한 회복은 결국 원달러환율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기인.



자료: 산업자원통상부, 한국은행,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